



진안 정천면 맞춤형복지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

진안군 정천면행정복지센터(김성학 면장) 맞춤형복지팀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하반기 인사에서 민원팀이 맞춤형복지팀으로 흡수되면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되어 주민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민등록업무와 세입업무를 함께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물론이고, 문화누리카드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푸드뱅크에서 것갈을 후원받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했으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는 S-d에서 후원하는 등유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2가구에 상품권 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에는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 가정의 집안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로 5톤가량의 쓰레기를 치워, 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대상자인 89세 이 모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집안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1년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자 마음의 문을 열고 집안 정리를 요청한 사려에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삶의향기, 영양 갖춘 '우아한 도시락' 기탁

금산면(면장 서효연)은 5일, '삶의향기(대표 허영숙)'로부터 18세미만 아동 가정을 중심으로 영양취약계층 50명에게 지원해달라며 도시락 50인분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은 우수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아한 도시락'은 지역의 시니어 봉사자들과 함께 영양 갖춘 도시락을 정성스레 만들어 이웃의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삶의향기'는 지난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되어 균형잡힌 식단 홍보 및 교육 추진 등 다양한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승합차 전달 받아

완주군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를 통해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민수)에 차량을 전달했다. 5일 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김민수 장애인복지관장이 참석했다. 장애인복지관이 전달받은 차량은 스테리아 승합차로 이웃 돕기 성공으로 마련됐다. 향후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어려운 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도움 되길”

정읍시 신태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위한 난방유 지원

정읍시 신태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정성섭, 정진균 공동위원장)는 지난 2일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추진된 난방유 지원사업은 고유가, 고공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지역 돌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난방 취약계층 47세대를 선정해 가구당 200리터 총 9,400리터 1,5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난방유 지원을 받게 된 가구는 기름값이 비싸서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난방유를 지원받게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성섭 공동위원장은 “물가가 급상승하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태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정의 날 나



난 행사와 여름철 선풍기 지원, 추석 명절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고을, '희망2023 나눔캠페인' 동참... 김제시에 1억원 기탁

김제 순동 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참고을(대표 김운권)이 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김제시에 이웃돕기성금 1억원을 기탁하여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참고을은 2015년부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전북 1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올해도 김제시에 1억원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랑에 앞장 서고 있다. ㈜참고을 김운권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신 ㈜참고을에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소중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고을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와 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종합식품 제조회사로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



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맛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업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광활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유자청 나눔

김제시 광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은미, 공공위원장 최연주)는 5일 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제 유자청을 만들어 관내 소외계층 8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유자청 나눔 행사는 주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기탁하여 이웃 사랑의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고른 유자를 정성껏 손질하고 유자청을 만들어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 청용면 행복보장협의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청용면 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미)가 지난 1일 관내 독거노인 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는 특화사업으로, 회의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청용면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오래된 벽지 및 천장 도배, 집 안팎 정리정돈을 실시하며 어르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추운 날씨를 이겨내며 힘을 모아 봉사활동을 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겨울철 화재위험이 큰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에서 5,08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60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주거화재 889건 중 화목보일러가 280건(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지정된 연료 사용과 가연물은 보일러와 2m이상 이격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보일러 사용 중 연료 투입구 닫기 △투입구는 3일, 연통은 3개월에 한번 청소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자칫 방심하면 우리에게 큰 화로 되돌아 올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지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etc.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and a large '112' logo.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a list of signs of child abuse.